

## 해 넘기는 조선대 정상화 교과부, 의지 있나 없나

### 학과 통폐합 등 중대 사안 결정 못해

조선대 법인 정상화 문제가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1월 2일 조선대가 정상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지 만 1년이 돼 가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조선대 법인은 이사가 없는 '이사 부존재'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처지에 놓였다. 조선대측은 최근 2009학년도 학사 일정 파행을 막기 위해 긴급사무처리권을 발동, 세 번째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사분위는 정국호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의 표명 이후 새 위원장 선임에 실패하면서 최근에도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다. <관련기사 3면> 조선대 법인 정상화는 지난 2006년 4월 조선대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에 따라 시작됐으나 ▲법인 정상화 결정권을 전 사분위 위원장의 법리 논쟁 ▲구 경영진의 비협조적인 태도 ▲교과부의 뒷집 행정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사분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28회에 걸친 정기 회의를 열었고, 소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했다. 사분위는 여러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나름의 임무를 했지만, 정작 초미의 관심사인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광운대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사분위의 어정쩡한 모습은 구 경영진이 학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의 결정이 됐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사분위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과부가 한시적이라고 밝힌 것이나 법인정상화 논의 도중에 갑자기 임시이사 재파견을 시도했던 것도 결국 교과부의 심의를 지연시키고 혼란을 부추긴 이유로 작용했다. 사분위는 교과부의 임시이사 재파견 시도의 해프닝으로 교과부와 사분위 간 엇박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이사가 없어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편법의 일종인 '긴급사무처리권'을 제시하는 등 조선대 등에 대한 교과부의 정상화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사분위가 의견 조정 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단 두 차례, 그것도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 정애리씨 등 구 경영진의 비협조적 태도도 조선대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구 경영진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진행되는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 사학실질자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기조 등으로 미뤄 정상화 논의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 것도 조선대로선 악재다. 각종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돼 다른 대학들과 경쟁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임시이사들로 이뤄진 이사회가 학교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학과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등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애로가 많다"면서 "정상화가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2008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홍빈 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7일 낮(현지시간) 남극대륙 탐사의 전초기지인 패트리엇 힐에 도착. 원정대 깃발과 함께 성공적인 등정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속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나라 남극 탐사 대원들이다. /남극=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남극 첫 발... 폭풍설 뚫고 정상 도전

### 본사 빈슨 매시프 원정대 캠프 구축 영하 50도 추위와 강풍 극복이 관건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 원정대'가 지난 27일 낮(현지 시간) 남극 탐험의 전초기지인 패트리엇 힐(Patriot Hills)에 도착, 남극 최고봉 등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2일 미국 LA와 칠레 산티아고를 거쳐 남미 최남단의 도시 Punta Arenas(Punta Arenas)에 도착한 원정대는 지난 14~15일 남극의 물류와 원정을 총괄하는 ANI(남극 여행 업무 대행사)의 장비 점검과 브리핑을 거쳐 대륙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당초 원정대는 당초 16일 패트리엇 힐로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남극 현지의 강풍과 눈보라로 인해 항공기가 뜨지 못해 10여일동안 푼타 아레나스에 발이 묶였다. 대원들을 포함 남극 탐사에 나선 45명의 승객들을 태운 러시아제 수송기 일루신(Ilyushin)은 27일 오전 마젤란 해협과 벨링스하우젠해(海)를 건너 4시간30여분만에 패트리엇 힐의 청빙지대에 마련된 얼음할주

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45·에코로바 홍보이사) 대장과 정후식(광주일보 기자) 대원 등 2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28일 등반 기점인 베이스 캠프(해발 2,100m)로 이동, 본격적인 캠프 구축에 나선다. 대원들은 빈슨 매시프 서면(West Face)에 3개의 캠프(2,700m, 3,100m, 3,700m)를 차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제 2캠프까지는 눈썰매를 끌어 장비를 나르고 경사 60~70도의 빙·설벽을 올라 제 3캠프를 설치한 뒤 새벽 초 정상 공격을 시도할 예정이다. 빈슨 매시프는 연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에 이르고 '풍극(風極)'이라 불릴 만큼 눈을 동반한 강한 폭풍설(블리

자드)이 쉽게 불어 추위와 강풍 극복이 등정의 관건이다. ANI 관계자는 "김 대장이 등정에 성공하면 양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희망 전도사' 김 대장은 "체력과 컨디션이 좋아 날씨가 좋으면 무난하게 정상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원정은 광주·전남비전21이 주최하고 광주일보와 KTF, 광주시, 순천시, 순천메디칼 재활요양병원, 금광기업이 후원하며 (주)에코로바에서 협찬했다. /남극=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부실 사립대 통폐합·폐교”

### 교과부 등 업무보고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관련기사 5면> 또 영산강, 한강, 금강, 낙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4대강 유역을 문화·관광·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토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 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

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내년 한해동안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을 올해 총 7천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어 열린 문화부 업무보고에서 유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문화생태 탐방로 개발 등 친환경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4대강 유역 향토문화지도'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4대강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내년에만 총 522억원을 지원, 5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영산강 유역인 나주에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등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평균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내년 1.4분기,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도 모를 위기에 있다"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

했다. 이 대통령이 비록 상반기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271명 사망

이스라엘이 27, 28일 이틀에 걸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해 271명이 사망하고 620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41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6면> 이스라엘은 28일 새벽(현지시간)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 남부 하마스군과 모스크 등을 타격하는 등 하마스군과 가자지구의 시파병원 인근 이슬람 사원에 폭탄을 투하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고, 하마스는 자살폭탄 공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분쟁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접경지대에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이 속속 집결하는 등 양측간의 분쟁이 한층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27일에 이어 28일 새벽에도 공군기들을 동원, 하마스 방송국과 모스크 등을 타격하는 등 하마스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 요원 2명이 사망했다고 의료진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헬리콥터 부대는 27일 밤 가자지구 4곳의 급속공장에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했다. 연합뉴스

## 과국 치닫는 '입법 전쟁'

### 野 본회의장 철야농성·與 강행처리 준비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300여명 상경

민주당은 28일로 사흘째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실상 강행처리를 준비하는 등 정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버팀대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더욱이 한나라당이 이날 확정 발표한 연내 처리 법안 목록에 대해 민주당 측은 'MB악법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반발, 여야 간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50여명은 이날까지 본회의장에서 사흘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새벽 시간 한나라당 측의 기습에 대비해 심야 경비조까지 편성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MB악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원 긴급결의대회'를 갖고 당력을 집중,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국회 파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핵심당직자 3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